



밝게 살려는 노력의 影像이 곧 우리의 바램이다.

참된 삶을 위해 다같이 “불조심을 生活化”하는 즐거움을 가져야 하겠다.

點이 線이 되어 圓을 그리는 幾何學의 原理와 같이 우리도 이제 여섯살이 되었다.

「火災安全點檢」誌 또한 通卷 12號를 엮게 되었으니 感慨가 無量하다.

어느 現狀에서나 陰이 있으면 陽이 있게 마련이다. 이 陰과 陽이 一致할 때 비로소 새 生命이 蘇生하는 法則이다.

페이지 페이지마다 나뉘대로 精誠을 담았으나 어떻게 評價될지 두려움이 앞선다.

理論과 實務의 結晶體 理論 一邊倒의 前轍을 止揚하고 理論과 實務의 調和속에서 人命과 財産을 保護하는데 밀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號는 讀者의 立場에 서서 恒常 지금 무엇이 必要하며 무엇이 바람직 한가를 생각하고 計劃하여 實現에 努力하는 마음의 姿勢로 펴 보았다.

<華>

火災安全點檢 《年 2回刊》
(通卷12)

登錄番號 바 520

登錄日 1973年 10月 11日

發行日 1979年 7月 1日

印刷日 1979年 6月 30日

非 賣 品

發行人 曹 興 萬

編輯人 金 雲 淑

印刷人 李 南 亨

發行所 社團 韓國火災保險協會
法人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614

汝矣島 郵遞局 私書函 27號

郵便番號 11510-□□

電話 (782) 8111~8125

(783) 2121~2135

本誌는 雜誌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要綱을 준수한다.